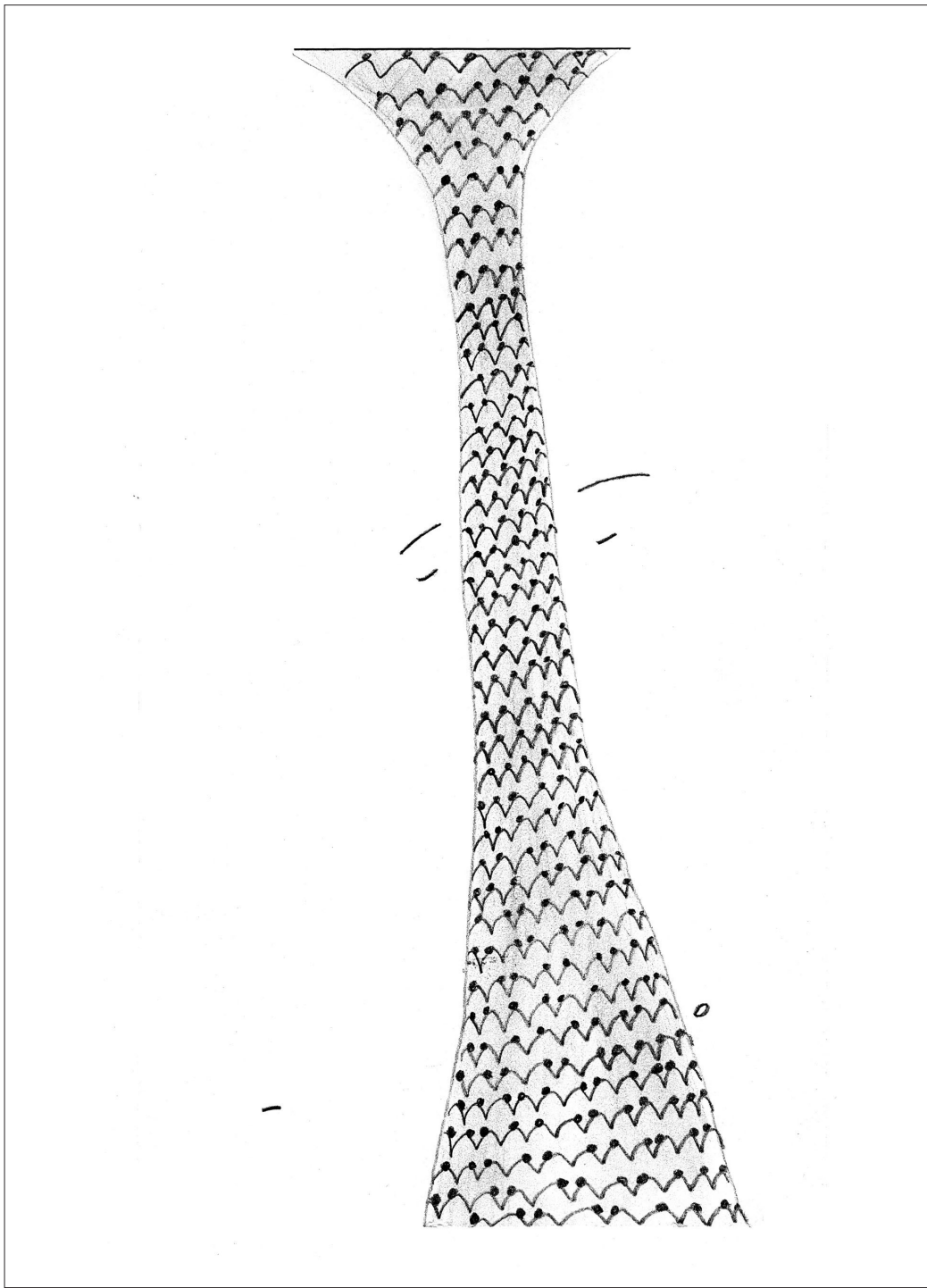


갤러리 색즉시공



그림·글 최상 스님

바로 너니라

어떤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 주고자 하나
 네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야.”
 “화상의 정성스러운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니라!!”

내 인생의 신장, 남편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살림하면서도 '공부' 할 수 있어
남편의 '괴음' 싫기만 했는데
'지난날' 알고 나니 큰마음 생겨

했는데 고모부가 보시고 하는 말씀이 “집안에서
 는 우리 란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네가 란이를 데려가니까 더 똑똑한 사람일세.”
 하셨다. 아버지께서도 고모부의 말씀을 전혀 듣
 고 흡족해하셨다.

남편은 내가 아이를 가지기 전, 자주 나를 데리
 고 여주의 신복사에 가곤 했다. 신라 진평왕 때 원
 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신복사는 남편이 어렸
 을 때 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셨던 연유로 해서 인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절에서 기도를 하
 면 아들을 낳는다고 들었던 것이다. 남편은 내
 가 아이를 갖고 난 후 붓글씨 공부를 할 때 곁에서
 화선지를 잘라주고 먹을 갈아 주며 채분에 날짜
 를 적어주었다. 차를 마시며 옆에서 먹을 갈아주
 던 순간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위한 태교의 시간
 이 되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햄버거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가지고 들
 어왔고, 외출했다가 늦으면 정류장에 포대기를
 갖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일도 있었다. 나에게
 아름다운 기억들이다.

남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술을 좀 과하
 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점 때문에 나를 닦을 수
 있었으니 그것도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든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시간에 나는 붓글
 씨를 썼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자는 시간에 수
 를 놓고 사경을 했다. 열불하면서 마음을 닦는 시
 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그
 로록 술을 먹은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
 각마저 든다.

침실이 넓은 최근 수술 전까지 술을 마실 만큼
 애주가인데, 술을 마시면 통일노래를 불렀다. 시
 아버님이 납북을 당한 탓이다. 시아버님은 양정
 고등학교를 나오고 인품이 좋으셨으며 금강산에
 서 스키를 타실만큼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깊었던 그는 “아버지가

간첩으로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술을 좋아하는 것도 그의 지난날을 이해하다
 보니 편하게 받아들여졌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
 해 힘들었던 그의 지난날은 그의 깊은 트라우마
 였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통일노래를 부르곤 했
 다.

하루는 남편이 흐느껴 울도 있었다. 왜 우느냐
 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것이다. 나도
 울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픈면 남자가 저렇
 게 눈물을 흘리겠는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내가 어떻게 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내
 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길 밖에
 없었다.

남편이 울면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울어?”
 “당신이 울어서 울어요.”
 그에게도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과 홀로 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하면 아이를 업
 고 나가서 기다렸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매번 통일노래를
 부르고 말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요 그런
 세월이 쌓여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하여 오라...”

지금도 남편이 처연하게 불렀던 ‘통일 노래’ 가
 가곡 높은 그의 등 너머로 들려오는 것 같다. 그렇
 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군대에 갔을
 때 돌아가셔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하니 이래
 저래 외로운 사람이다.

최근 이산가족 찾기에 신청을 해놓았다고 한
 다. 고향에 가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셨을 아버
 지의 행적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요즘은 그
 일로 바쁘다.

상대방의 지난날을 이해하면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면 미움보다는 사랑이 생긴다.
 기도를 해보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도는 내가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지장보살
 기도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능력을 가진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 ‘이렇게 되었으
 면...’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일이 이뤄지듯, 부
 처를 부르면 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술을 “마셔라, 마라” 할 필
 요도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엔 남편
 이 술을 먹는 것이 그렇게 미웠는데, 큰 수술 후
 술을 마시지 못 하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남편은 20여 년 동안, 집에서 가정법회를 할 때
 도 좋다 싫다 말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헛바라
 지해주었고, 내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걱정해주고 보살펴주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다.

요즘 우리 부부는 한 달에 한번 여행도 할 겸 남
 편과 함께 문경 관음사로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들
 으러 간다. 오는 길에는 맛있는 밥도 사먹고 이야
 기도 하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낸다. 노년을 함께
 도반처럼 지내며 함께 마음공부를 하고 있으
 니 이래저래 좋은 평생도반으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
 고맙기만 하다.

(여여원 원장)

나는 김장 김치 하나를 담아도 한겨울에 먹을
 김치와 초봄에 먹을 김치를 따로 담아 향이리에
 이름을 붙이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일일이 담을
 정도로 나 나름대로는 살림에 정성을 쏟는 편이
 다. 그러나 그런 정성들이 단순히 일로만 그치고
 말았다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
 라서는 살림이 명상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
 고, 돈벌이로 생각하면 ‘돈벌이’ 일 수도 있는 것
 이고, 노동으로 생각하면 ‘노동’ 일 수도 있다. 수
 행을 통해 ‘나’ 라는 본성을 보기 위해 노력한 시
 간이었기에 그 일들을 하는 동안 행복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살림을 하면서도 공부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
 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도반이고,
 스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장님이랑 생각
 이 든다.

남편으로 인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으니 무
 엇보다 고마운 인연이고 앞으로 나와 가장 마지
 막으로 남을 남자친구이니 얼마나 귀한 인연인
 가. 작년에 탁났한 스님이 방한하셨을 때 아들과
 떡을 가지고 월정사까지 와서 대중공양을 올리
 고 수행 잘하라고 격려하고 돌아간 고마운 남편
 이다.

불교를 만나기 전 살림을 하면서 붓글씨, 동양
 자수, 다도 등 규방의 솜씨를 익힐 수 있었던 것도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나에게 가져다준 월급봉
 투 덕분이었으니, 그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책
 임감에 늘 감사하며 산다. 남편이 월급을 타오면
 조금 떼어내어 봉투에 넣어 조상님 앞에 올렸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살았고, 특
 별한 시집살이가 없었기에 나만의 세계를 누릴
 수 있었다. 모두 남편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스물네 살 때 지금 평생도반으로 사는 남편과
 만나 혼인했다. 남편은 내 직장 친구의 나이 많은
 조카였다. 직장 친구가 조그마한 계모임을 주선
 했는데, 그 친구가 조카에게 계를 들 것을 권유해
 서 남편이 같은 계원이 되었다. 친구가 남편에게
 젓돈을 받으러 다방에 가면 같이 가서는, 나는 다
 른 장소에 앉아 있고, 친구는 조카와 얘기하고 돈
 을 받아 오곤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카가 너를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다. 키가 작으니 작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는 친구의 말을 듣고 몸집이 아담한 한 친구를 소
 개했더니 다시는 더 만나지 않았다. 나중에 왜 다
 시 만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다방에서
 나오자마자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 후 남편이 친구에게 정식으로 나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친구가 나에게 의사를 물었다.

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바로 어머니와 의
 논했다. 그 말은 들은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주를
 보신 모양이었다. 좋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났는데 하루는 남편이 “정
 한 데 없으면 나한테 와주면, 호위호식은 못해줘
 도 밥 세끼는 먹여주겠다.”고 했다. 엄마한테 그
 대로 말했더니 “나이 먹은 사람이라 말은 잘하
 네.” 하셨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지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고모부를 보내 남편을 한번 보라고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들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밤의 평안을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자비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
 13. 사랑을 쓸때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계
 24. 지장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한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발우 환경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불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신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길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양장
 53. 관세음보살 2양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 무료배송 66%

■ 무료배송 57%

■ 무료배송 70%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 하루사용 특AAA급 증고
 - 전시상품 절대 아님
 -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에pson AL-2310D 125,000원

교세라 FS-1120D 110,000원

OKI-B410D 90,000원